

공동체 소식

▣ 성주간 안내(일년 중 가장 거룩한 주간)

***가톨릭 전례시기 중 가장 정적인 성삼일 전례에 참여하여 기쁜 부활을 맞이합니다.**

14일(일) 성지주일 오전 11시

- 성당 마당에서 시작
- 성지 축복 및 행렬예식
- CRS Rice bowl 봉헌

16일(화) 교구 Savior Pastoral Center 11시 성유축성미사

(평일미사 없습니다.)

17일(수) 평일 미사 없습니다.

18일(목) 주님만찬성목요일 오후 7시 30분

- 세축례
- 가난한 이웃을 위한 특별헌금
- 밤샘 성체조배

19일(금) 주님수난성금요일 오후 7시 30분

- 십자가의 길
- 수난예식과 십자가 경배
- 예루살렘 성지복구 위한 특별헌금

(Pontifical Good Friday Collection for the Holy Land)

20일(토) 파스카성야 오후 8시

- 빛의 예식
- 말씀전례와 물축복
- 성찬례

21일(일) 부활대축일 오전 11시

- 사제직을 위한 2차헌금(Priesthood: past, Present & Future)

부활대축일 전례꽃 봉헌 안내

- 방법: 전례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미사안내

9일(화) 평일미사 없습니다.

16일(화), 17일(수) 평일미사 없습니다.

23일(화)~25일(목) 평일미사 없습니다.

▣ One Faith One Family One Future In CHRIST

캠페인 기도문을 미사 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설명은 지난 주보와 함께 배포된 교구장 주교님 편지를 참조해 주십시오.(영문/한글번역본)

▣ 주일학교 교리 안내

주일 오전 10시-10시 30분 나자렛관에서 교리 교육있습니다. 10시 30분 이후 성당으로 이동하여 십자가의 길 기도에 함께 합니다.

Camp Tekakwitha 주일학교 여름캠프 신청바랍니다(캔사스 대교구 주관)

▣ 중남부 남성 제16차 꾸르실료 신청 안내

일시 : 5월 30일(목) 오후 5시 ~ 6월 2일(일) 오후 5시

장소 : Formation Center 901 S. Madison Ave. Dallas, TX, 75208

대표지도사제 : 고훈호 베드로 신부님

회비 : \$350

본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중에 꾸르실료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녀오시 는것이 좋습니다. 전례부에 참가 신청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 중 예레미야,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 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 옥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 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 섭 요셉, 김동술 세레자요한, 감영진 라파엘 (25가정)

▣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건
금 주	115	221	160	177

14일(일) 성지주일성가번호 (라이스볼 봉헌)

따름노래 : 매일미사 81쪽

행렬출발 : 성가 10

행렬계단앞 : 성가 75

봉헌 : 성가 511

성체 : 성가 180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시연(엘리사벳)	박태주(로마노) 김명희(리드비나)
차 주	김명은(안젤라)	홍순익(마르띠노) 최은미(아네스) 수난복음: 김대연(요셉)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정예진(한나) 김정훈(로베르토)
차 주	전체 복사	

성목요일, 성금요일, 파스카성야 모두 전체 복사입니다.

▣ 헌금 봉사자

금 주	이우영(가브리엘), 차상욱(펠릭스)
차 주	김태중(예레미야), 강승호(아오스딩)

▣ 애찬 봉사자

금 주	9조: 김시연, 김명희, 윤지선
차 주	1조: 조지연, 박정자, 김경돌, 정연숙, 이경남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매 미사 후 뒷정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당연락처 korean1481@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좋으신 주 하느님께서 세상을 심판 하시려 외아드님을 보내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가련히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어, 우리 마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림 묵상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 하셨습니다. 그들이 졸곤 물어 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 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8, 6-7)

그림 Sin No More II by Del Parson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3,16-21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리라.>

화 답 송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 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3,8-14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을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11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생명의 말씀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만나면서 당신이 자비롭고 의로운 재판관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이는 율법학자들이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두 차례나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시며’(요한 8,6-8 참조) 그 옛날 시나이 산에서 당신 손가락으로 율법을 쓰신(탈출 31,18 참조) 하느님의 모습을 재현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라고 명령하신다면 이는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요한 3,17 참조)라는 평소의 가르침과 행동에 위배됩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 죄가 없으니 풀어 주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마태 5,17)는 당신의 사명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 8,7) 죄인들은 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죄인을 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성 아우구스티노).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요한 8,11) 예수님은 죄를 단죄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단죄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양심의 지성소(至聖所)로 돌아가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의로워지라는 은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며 한국 법조계의 전설이신 ‘사도법관’ 김홍섭(바오로) 판사님이 떠오릅니다. 이분의 위대함은 1950년~60년대에 사형수들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실정법(實定法)과 하느님의 법이 담겨 있는 자연법(自然法) 사이에서 신앙인으로서 깊이 고뇌하며 판결하던 구도자적인 삶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고귀한 사명은 사회구성원들의 인간적인 이익과 여론에 부합하는 실정법적인 차원의 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理性)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느님의 영원법인 자연법을 수호하고 구체화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까.

현재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성과 임신부(妊産婦)의 자기결정권과 태아(胎兒)의 생명권(生命權) 중 어느 것이 자연법에 더 부합한지는 우리 모두에게 불문가지(不問可知)의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겠습니까. 태아는 산모와는 별개로 존중받아야 할 고귀한 생명입니다. 아무쪼록 헌법재판관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결을 간청하며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판결이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를 비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구요비 읍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너의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운 돌맹이를 들고 왔겠지.

던지지 못해 떨구고 떠난 너의 돌맹이

그 돌맹이가 모여 골고타가 되고 그곳에서 내가 죽어

너의 마음속 돌맹이를 없애줄게.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요한 8,11)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성가대 봉사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과거의 나는 과연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용서를 청했을까 궁금해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한 문장 앞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제가 쓰일 수 있도록,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세요.”

주님의 은총과 기적을 체험했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는데도 아직 충분히 용기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제 개인적인 체험을 나누는 것이 환우분들과 가족분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지만, 누군가에게는 조그마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구로 제 삶을 헌신하고 싶다는 기도 안에서 과거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 봅니다.

2010년 방송국에 첫발을 디딘 후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몸이 여러 신호를 보내오는 것도 무시한 채 오직 앞만 보며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에 걸렸고, 여느 때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몸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고, 일주일 동안 고열이 계속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를 찍었고, 그 길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생사를 다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병명은 확장성 심근병증이었고,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여러 기계장치를 달아야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새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괴사가 시작되어 여러 합병증이 나타나며, 언제 삶을 마감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수일 내에 조직이 맞는 공여자를 만

나야만 하는 상태였고,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 마지막 희망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주변에서는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신앙인이 아니셨던 아버지도 신부님의 손을 잡고 매일같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마르 9,24) 그러한 간절한 기도들이 하늘에 닿았는지, 나흘 뒤 새벽 저와 90% 일치하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셨던 아버지께서 의료진 앞에서 ‘이 아이는 이제 제 딸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딸이예요!’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저는 기적을 체험했고, 빠른 회복세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께서는 교리 공부를 시작하셨고, 저는 성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다른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힘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사람의 기도하는 두 손으로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마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느님께서 이뤄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면 분명 주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의 평화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도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오수진 아가다 | KBS 기상캐스터

복음묵상



캘리그래피 손창배 바오로